

이동진의 빨간 책방

23

진행 이동진 PD 박미정 작가 허은실 기획 및 제작 왕인정, 허윤경

책, 임자를 만나다



생존자

장기간 계속되는 위기 속에서 인간은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까? 이 책은 그러한 위기 속 인간의 생존 양식을 보여준다. 또한 정신과 육체에 극단적인 손상을 입고도 인간성을 잃어버리지 않은, 의연한 인간의 모습을 그리기도 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파헤치려는 대상으로 집단 강제 수용서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속의 인간, 그곳을 체험하고 그 만행을 견디어 내고 세계에 증언하기 위한 돌아온 사람들로 잡았다. 저자는 극한 상황에서의 생존방식과 생존의 조건을 제시하며 그런 상황에서의 생존은 결코 되는대로 삶을 부지하는 부도덕한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뚜렷한 조직적 경험에 의해서라는 걸 보여준다. 또한 이 책의 목적이 그 생존 방식의 구조를 명확히 밝히는데 있음을 강조한다. [출처 / YES24]

에디터 통신

추사의 마지막 편지, 나를 닮고 싶은 너에게

이 책은 '인문실용소설' 이라는 독특한 형식으로 씌어졌는데요, 삶, 사람, 사물을 대하는 추사의 지혜를 아들에게 편지로 전하고 있습니다. 화자인 김정희가 자신의 삶을 회상하면서 담담하게 서술하고 있는데, 우리의 현실에도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삶의 방법론 또한 정리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인문서와는 다른 느낌으로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지만,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은 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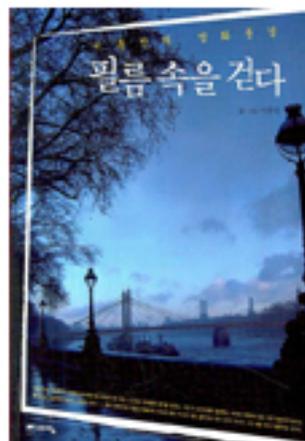




필름속을 걷다

생존자의 배경이 되었던 오슈비엔침과 비르케나우라는 제2 수용소까지 갔다 왔던 경험이 저한테 무척 강렬한 경험이었어서 그때 이야기를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영화를 테마로 해서 여행 다녀온 책을 총 3권 썼는데, 그 중 <필름 속을 걷다>라는 책의 손들러 리스트 편에서 방금 전 얘기했던 곳을 다녀온 이야기가 담겨 있어서요. 그 배경인 크라쿠프를 다녀왔던 부분 전체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크라쿠프를 다녀왔던 제 여행기입니다.



니나가 만나러 갑니다

러시아문학의 맛있는 코드

Q. 출간하시는 책마다 독특한 주제로 독자들의 주목을 받고 계십니다. '음식'에 주목하시게 된 계기는?

A. 체호프의 '개를 데리고 다니는 부인'이라는 책을 보다가 어떤 특정 장면에서 음식이 주는 모티브가 궁금해졌다. 그렇게 하나씩 찾다보니 책 한 권 분량이 되어버렸다

Q. 러시아 대문호들이 음식에 탐닉한 이유는 뭘까요?

A. 음식이 인간의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음식을 갖고 뭔가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다.

Q. 톨스토이, 솔제니친 등 책 속에 참 많은 작가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 중 가장 애착이 가는 인물은?

A. 푸시킨이다. 소박한 식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먹는 행위를 좋아하고, 그에 관한 잠언도 많이 남긴 인물이다. '점심에 먹을 수 있는 것을 저녁까지 미루지 마라' 같은.

Q. 러시아 음식 중에서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

A. 우리식으로 말하면 밀전병 같은 것인데, 러시아 팬케이크라고 불리는 '블린'을 좋아한다.



내가 산 책

아무도 정확히 모르는 것에 관하여

영원히 끝나지 않는 숨바꼭질, 행복을 찾아서

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신경숙이 들려주는 26개의 짧은 단편

인간이력서

수만 년에 걸친 인류 역사의 파노라마

과잉연결시대

24시간 만인에게 내 사생활이 노출되고 있다?

고전으로 읽는 폭력의 기원

인류 역사 속에 숨겨진 폭력의 실체



이동진의 빨간 책방

디지털 매거진 4월호 발행!

아이폰 뉴스가판대를 통해
디지털 매거진 Vol.02가
 발행 됩니다
 오감으로 전달되는
 다양한 콘텐츠의 매력을
 직접 느껴 보세요

Vol.02 다운로드 



매거진 미리보기

2013년 4월 1일, 아이튠즈 뉴스가판대에서 이동진의 빨간 책방 VOL.02를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표지



책, 임자를 만나다



소리나는 책



2B가 그리러 갑니다



내가 산 책